

# 조선조 후기 사대부가 기록한 아내의 일생:

행장 26편으로 본 내조(內助)의 힘

이지양\*

## 【요약】

한국문집총간 전집과 속집을 통틀어서 찾은 「망실행장(亡室行狀)」은 17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모두 26편이 전한다. 이 26편을 대상으로 양반가의 결혼과 사별 연령, 그리고 부덕(婦德)의 항목들을 고찰해보았다. 행장의 부덕 항목은 아내의 가계나 생장과정 및 타고난 품덕에 대한 서술, 묘소위치 정도를 제외하면 계녀서(戒女書)에서 권장하는 부덕의 항목과 일치한다. ‘시부모 섬기기, 제사 받들기, 손님 대접하기, 일가화목하기, 종들 잘 다스리기, 태교 및 육아, 이웃과의 예절, 처산(治産), 남편 섬기기’ 같은 항목이다. 행장(行狀)은 망자(亡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외에 제문(祭文)에서나 떨어놓을 수 있는 기록자의 심회(心懷)나 두 사람간의 추억, 생활 일화 같은 것이 풍부하게 포함된다. 따라서 남편이 쓴 아내의 행장에는 아내의 내조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아내를 추억하는 남편만의 감정적 특징이 드러나 있다. 양반층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 특별히 감사한 항목은 처산(治産), 남편에 대해 정직하게 충고하고 조언을 해준 일, 시집살이의 인고(忍苦)였다. 조선시대 「망실행장」 26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전형적 유교가부장제를 실현하고 있는 양반층 부부의 모습이었다. 유교가부장제의 부부상을 확인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변화된 부부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망실행장(亡室行狀), 부덕(婦德), 남편의 심회, 처산(治産), 조언(助言)

---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I. 문제제기

행장(行狀)에서 “장(狀)이란 묘사한다[狀者貌也]”는 의미이다. 원래 행장이란 죽은 사람의 일생을 그대로 묘사하여 조정(朝廷)에서 예관(禮官)이 시호(諡號)를 정할 때 참고하고, 사관(史官)이 입전(立傳)할 때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혹은 묘지(墓誌), 묘비(墓碑), 묘표(墓表) 등과 같은 유의 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했다. 한(漢)나라 때 부조간(傅朝幹)이 지은 ‘양원백(楊元伯) 행장’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고, 후세에는 모두 그것을 따라 기록했다고 한다. 죽은 사람의 세계(世系), 이름과 자, 벼슬, 살았던 마을, 행적과 치적, 살고 간 나이 등을 상세하게 갖추어 기록하는 것이 행장의 내용이다. 그러니 이 행장은 대부분 문하생이나 수하의 관속들이나 친구들의 손에서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sup>1)</sup>

하지만 벼슬길에 오를 리도 없고, 사관이 채택하여 입전할 리도 없는 여성의 경우, 행장은 신분 지위가 높았던 극히 소수의 여성, 그리고 할머니나 어머니의 묘비를 세우기 위해, 혹은 자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아들이나 손자가 기록하곤 했다. 더구나 사대부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 행장을 쓴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하거니와 상당히 후대의 일이기도 하다. 조선조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아내의 일생을 행장으로 기록한 것은 조선조 후기로 접어들어 17세기 무렵부터나 발견된다. 현재까지 간행된 『한국문집총간』 전집, 속집을 통틀어서 찾은 「망실행장(亡室行狀)」이 겨우 26편<sup>2)</sup>인 것이다. 희소성의 측면에서는 물론

1) 이상에 설명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한 것이다. 按劉鑑云 狀者貌也。禮貌本原取其事實先賢表諡並有行狀。狀之大者也。漢丞相倉曹傅朝幹始作楊元伯行狀。後世因之。蓋具死者世系名字爵里行治壽年之詳。或牒考功太常使議諡。或牒史館請編錄。或上作者乞墓誌碑表之類。皆用之。而其文多出於門生故吏親舊之手。以謂非此輩不能知也。徐師曾, 『和刻本文體明辯 3』(京都, 中文出版社, 1988), 1476. (이하, 본 글에서는 『文體明辯』의 페이지만 밝히기로 한다.)

2) 26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자	글 제목	문집명 (문집총간번호)	문집면수	17~18세기 생활사자료집 번역본 면수

1	申欽	亡室李氏行狀	象村稿(072)	133b	없음.
2	申翊聖	亡室貞淑翁主行狀	樂全堂集(093)	358a	없음.
3	金壽增	亡室淑人曹氏行狀	谷雲集(125)	245a	17세기 권2:253면~
4	趙克善	亡室淑人江華崔氏行狀	冶谷集(속집026)	208d	없음.
5	丁時翰	亡室柳氏行錄	愚潭集(126)	380d	17세기 권4:88면~
6	閔鼎重	亡室贈貞夫人申氏行狀	老峯集(129)	204c	17세기 권2:329면~
7	李選	亡室孺人尹氏行狀 乙未六月	芝湖集(143)	493b	17세기 권3:208면~
8	金錫胄	亡室孺人李氏行狀	息庵遺稿(145)	499a	17세기 권3:270면~
9	林泳	亡室安人曹氏行狀	滄溪集(159)	399b	없음.
10	崔奎瑞	亡室貞敬夫人李氏行狀	良齋集(161)	234c	없음.
11	金時保	亡室淑人尹氏行狀	茅洲集(속집052)	438d	없음.
12	李宜顯	亡室贈貞敬夫人魚氏行狀	陶谷集(181)	368c	18세기 권7:329면~
13	李宜顯	亡室贈貞敬夫人宋氏行狀	陶谷集(181)	370b	18세기 권7:335면~
14	申益愜	亡室恭人順天朴氏行實記	克齋集(185)	484d	18세기 권4:81면~
15	李東	亡室安人尹氏行狀	巍巖遺稿(190)	520b	18세기 권4:323면~
16	趙觀彬	亡室貞夫人昌原俞氏行狀	梅軒集(211)	532c	18세기 권2:299면~
17	趙觀彬	亡室貞夫人慶州李氏行狀	梅軒集(211)	534a	18세기 권2:304면~
18	南有容	亡室恭人杞澗俞氏行狀	雷淵集(217)	524d	18세기 권3:303면~
19	吳瑗	亡室孺人安東權氏行錄 戊戌	月谷集(218)	551d	18세기 권3:340면~
20	朴胤源	亡室行狀	近齋集(250)	566d	18세기 권2:322면~
21	黃胤錫	記亡室生卒	頤齋遺藁(246)	486a	18세기 권2:380면~
22	朴準源	亡室行狀	錦石集(255)	183b	없음.
23	洪爽周	亡室贈貞敬夫人完山李氏行狀	淵泉集(294)	030d	없음.
24	任憲晦	亡室贈貞夫人尹氏行錄	鼓山集(314)	430a	없음.

이요, 양반 사대부가의 아내의 전형적 형상 뿐 아니라, 시대부가의 전형적 부부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흔히 비지전장류(碑誌傳狀類)라 하여 죽은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글들을 묶어서 거론하지만, 행장은 전(傳)이나 묘지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우선 전(傳)의 경우를 보면 두 종류의 글이 모두 대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사실에 기초하여 써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하지만 행장은 자녀를 비롯하여 집안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남편이 쓸 수가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입전(立傳)한 글은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전(傳)이란 것이 원래 사적(事蹟)을 기재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 역사적 기술의식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이래로 시골구석에서라도 덕이 있는 데도 숨겨져 드러나지 않은 자나 변변찮은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본받을만한 자가 있다면 모두 전을 지어 전하고 의미를 부여<sup>3)</sup>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거나 사적인 차원을 떠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기록행 위였다. 그런 까닭에 아내에게 아무리 잊지 못할 덕목이 있어도 아내를 입전(立傳)한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 아내를 입전한 글은 없다.

그런가하면 행장과 묘지문은 그 형식과 내용에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행장에 바탕하여 묘지문이나 묘비명을 작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묘지(墓誌)<sup>4)</sup> 역시 한(漢)나라 때 두자하(杜子夏)로부터 시작되었고, 후세 사람이

25	宋秉璿	亡室李氏行狀	淵齋集(330)	363b	없음.
26	田愚	亡室朴氏家狀	良齋集(333)	284c	없음.

17~18세기 생활자료집 면수는 다음 책의 권수와 면수를 밝힌 것이다.

김경미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4)』 (보고사, 2006).

황수연 외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8)』 (보고사, 2010).

3) 按字書云, 傳者傳也. 紀載事迹, 以傳於後世也. 自漢司馬遷作史記創爲列傳, 以紀一人之始終, 而後世史家卒莫能易嗣是. 山林里巷, 或有隱德而弗彰, 或有細人而可法則皆爲之作傳, 以傳其事寓其意. 『文體明辯』, 1623.

4) 至漢杜子夏, 始勒文, 埋墓側, 遂有墓誌. 後人因之, 蓋於葬時, 述其人世系, 名字爵里, 行治壽年, 卒葬日月, 與其子孫之大略, 勒石, 加蓋埋于壙前三尺之地, 以爲異時陵谷變遷之防, 而謂之誌

그것을 따라했다고 전한다.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사람의 세계(世系), 이름과 자, 벼슬, 살았던 마을, 행적과 치적, 살고 간 나이, 죽은 날, 장사한 날과 그의 자손들의 대락을 기술하여 돌에다 새기고 뒷개를 덮어서 광(曠) 앞 석 자(尺) 되는 곳에 묻어서 훗날 능곡(陵谷)이 변천되더라도 무덤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기능을 지나다 보니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묘지는 행장에 비해 글의 분량에 제한을 받기에 내용이 건조해지기 쉽다. 지(誌)라는 것이 원래 기록한다(記)는 뜻이고 명(銘)이란 것은 새긴대(名)는 뜻이다. 죽은 사람의 덕과 선, 공렬을 후세 사람이 그를 위해 기물(器物)을 만들고 거기에다 새겨서 영원히 전해지게 하는 것이어서 묘지나 묘비명은 행장보다 간략하고 공식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묘지나 묘비명을 통해서는 그 대상 인물의 생활 모습이나 추억을 찾기 힘들고, 기록자의 감정을 읽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지전장(碑誌傳狀)’ 가운데서도 행장(行狀)은 망자(亡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외에도 제문(祭文)<sup>5)</sup>에서나 털어놓을 수 있는 기록자의 심회(心懷)나 두 사람간의 추억, 생활 일화 같은 것이 풍부하게 포함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조선조처럼 남녀 간의 내외 구분이 엄격하던 문화 속에서는 양반집 규수의 생활상이나 내외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행장에서는 그 점이 다소 나타난다. 또 제문(祭文)에서 토로하거나 회고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순간의 추모자의 심정에 기우는 반면, 행장(行狀)의 경우에 토로하거나 회고하는 심정은 긴 시간을 두고 간추려낸 일화라는 점도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행장 형식의 글이 지닌 특징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조선조 후기에 양반 사대부가 직접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쓴 행장 26편을 대상으로 삼아, 다음

銘. 『文體明辯』, 1485.

5) 제문이란 친척이나 벗에게 제전(祭奠)을 드릴 때 사용하는 글이다. 옛날의 제사는 단지 고향(告饗)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었는데, 중세(中世) 이후로 언행(言行)까지 겸하여 찬양하고 애상(哀傷)하는 뜻을 부쳤으니, 대체로 축문(祝文)의 변체(變體)라고 하겠다. (按祭文者祭奠親友之辭也. 古之祭祀, 止於告饗而已. 中世以還兼讚言行, 以寓哀傷之意, 蓋祝文之變也.) 『文體明辯』, 1691.

세 가지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는 조선조 후기 사대부의 아내가 지닌 보편적 부덕(婦德)을 확인한다. 둘째는 양반가문의 남편이 잊지 못하는 아내의 형상과 덕목을 정리한다. 이런 경우는 공통된 점도 있고 집집마다 개별적인 차이점도 있을 것이다. 그 점을 고려하면서 정리하여 양반 부부의 일생 윤곽을 짚어본다. 셋째는 이 26편의 행장을 통해 조선조 양반가 여성의 부덕(婦德)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평가해야 좋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문제는 특히 칭송을 듣는 사람과 칭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 조선조 후기의 대가족 가문 중심적 사고와 오늘날의 개인 중심적 사고로 부덕(婦德)을 평가하는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양반가의 결혼과 사별 연령, 그리고 부덕(婦德) 항목

### 1. 결혼과 사별 상황

26편의 행장을 텍스트로 삼아 남편과 아내의 생몰년도, 혼인 연령, 상처한 연령, 혼인 기간, 수명, 자녀수, 남편 재취 여부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표-1]

	남편 (생몰년도)	혼인 나이	상처 연령	혼인 기간	수명	아내 (생몰년도)	혼인 나이	수명	자녀 수 / 당시상황	남편의 재취여부
1	신흠(申欽) 1566~1628	15	58	43 년	63	이씨(李氏) 1566~1623	15	58	2남 5녀	×
2	신익성(申翊聖) 1588~1644	12	40	29 년	57	정숙옹주 (貞淑翁主): 선조의 3녀. 1587~1627	15	41	13인 중 5남 4녀 (생존 9인)	×
3	조극선(趙克善) 1595~1658	23	60	38 년	64	최씨(崔氏) 1596~1654	22	59	3남 1녀	×

4	김수증(金壽增) 1624~1701	20	64	45 년	78	조씨(曹氏) 1627~1687	16	61	3남 4녀	×
5	정시한(丁時翰) 1625~1707	14	66	53 년	83	유씨(柳氏) 1624~1690	15	67	4남 1녀	×
6	민정중(閔鼎重) 1628~1692	16	19	4 년	65	신씨(申氏) 1627~1646	17	20	1녀 (1남은 태중 죽음)	洪處尹의 女 /측실(側室)
7	이선(李選) 1632~1692	15	23	9 년	61	윤씨(尹氏) 1632~1654	15	23	없음.	黃一皓의 女
8	김석주(金錫胄) 1634~1684	14	25	12 년	51	이씨(李氏) 1634~1658	14	25	없음.	黃一皓의 女
9	임영(林泳) 1649~1696	17	26	10 년	48	조씨(曹氏) 1651~1674	16	24	없음. (1남1녀 요절)	李龜年의 女
10	최규서(崔奎瑞) 1650~1735	15	83	69 년	86	이씨(李氏) 1649~1732	16	84	8인 중 3남 (3남 2녀 요절)	×
11	김시보(金時保) 1658~1734	16	45	30 년	77	윤씨(尹氏) 1656~1702	17	47	1남 2녀	×
12	이의현(李宜顯) 1669~1745	15	32	18 년	77	어씨(魚氏) 1667~1700	17	34	없음 (2남 1녀 요절)	宋夏錫의 女
13	이의현(李宜顯) 1669~1745	33	48	16 년	77	송씨(宋氏) 1682~1716	20	35	4인 중 1남 2녀 (1녀 요절)	柳寅의 女
14	신익항(申益攄) 1672~1737	21	29	9 년	66	박씨(朴氏) 1674~1799	19	27	1남 1녀	尹哲의 女
15	이간(李柬) 1677~1727	20	39	20 년	51	윤씨(尹氏) 1676~1715	21	40	3남 1녀	尹以微의 女
16	조관빈(趙觀彬) 1691~1757	15	39	25 년	67	유씨(俞氏) 1689~1729	17	41	없음 (후사 입양함)	李燁의 女
17	조관빈(趙觀彬) 1691~1757	40	40	23 일	67	이씨(李氏) 1711~1730	20	20	없음	朴聖益의 女 /측실(側室)
18	남유용(南有容) 1698~1773	16	34	19 년	76	유씨(俞氏) 1698~1731	16	34	2인 중 1남 (1녀 요절)	崔禕의 女 /金錫泰의 女
19	오원(吳瑗) 1700~1740	16	19	4 년	41	권씨(權氏) 1700~1718	16	19	1녀	崔寔의 女
20	박윤원(朴胤源) 1734~1799	15	48	34 년	66	김씨(金氏) 1734~1781	15	48	1남	×
21	황윤석(黃胤錫) 1729~1791	20	48	29 년	63	정씨(丁氏) 1729~1776	20	48	3남 2녀	측실(側室)
22	박준원(朴準源) 1739~1807	16	45	30 년	69	원씨(元氏) 1740~1783	15	44	4남 3녀	측실(側室) ※(왕실과 혼인)
23	홍석주(洪奭周) 1774~1842	12	59	48 년	69	이씨(李氏) 1774~1832	12	59	5인 중 1녀 (1남2녀 요절, 1남은 19세에 죽음)	×
24	임헌희(任憲晦)	18	50	33	66	윤씨(尹氏)	17	49	없음	李德沼의 女

	1811~1876			년		1812~1860			(1남 1녀 요절, 1녀도 먼저 죽음)	/측실(側室)
25	송명선(宋秉璿) 1836~1905	18	23	6 년	70	이씨(李氏) 1835~1858	19	24	없음 (후사 입양함)	韓泰元의 女
26	전우(田愚) 1841~1922	18	34	17 년	82	박씨(朴氏) 1841~1874	18	34	5인 중 2남 1녀 (1남1녀 요절)	朱聖東의 女 /측실(側室)

위의 도표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15세 전후로 20세를 넘기기 전에 결혼했다. 6) 결혼한 나이는 서로 비슷하거나 같았으며, 결혼생활 기간을 보면 23일에서 69년에 이를 만큼 개인차가 크지만 평균을 내면 25년 정도가 나온다. 상처한 연령도 개인차가 커서 19세에서 83세에 이르지만, 평균을 내면 42세 정도가 된다. 남편의 평균수명은 66.5세이고 아내의 평균수명은 40.9세이다. 이러한 평균은 당시의 결혼 적령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지만, 각주 6번의 1930년대 남녀 평균수명과 비교해 볼 때는 이 자료가 양반 사대부가의 자료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시간차이를 고려할 때 이 소수의 자료만으로 보아도 양반가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남녀 모두 매우 장수한 경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 도표만을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26년 정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남편이 쓴 아내의 행장 자료이므로 당연히 아내가 일찍 죽은 경우에

- 6)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혼인 연령이나 출산율, 혹은 남녀 평균 수명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해석할 기준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조선총독부가 계간(季刊)으로 발행했던 『조선통계시보』 창간호(1936년 3월)부터 제13호(1939년 5월)까지 총 13권중 11권을 통계청이 입수하여 분석한 자료와 비교해 볼 수는 있다. 1931~1935년 당시의 혼인연령은 남자는 17세미만 결혼율이 11.6%, 17~19세가 32.4%, 20~24세가 35.9%였고 여자는 15세미만이 8.8%, 15~19세가 72.2%로 전체의 81%가 19세 이하에 결혼했다. 남녀 평균수명은 남자는 36.3세, 여자는 38.5세였다. (통계청, 「〈조선통계시보〉를 통해 본 1930년대의 사회상」, 『통계분석 자료모음, 1991-1994』 (통계청, 1994), 155~170).
- 1910년 전후부터 1930년대까지 전쟁과 침략이라는 역사적 혼란상, 그리고 양반층이 아니라 서민들이 다수인 전체 평균수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녀의 평균수명에서 여자의 수명이 약간 길게 나타난 점은 특이한 점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또 영양부족과 의술 미발달로 인해 5세미만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전체의 40.9%에 달했는데, 그 점도 26편의 행장에서 보이는 자녀 사망수가 높은 점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한한 것이긴 하지만, 요즘<sup>7)</sup>과 달리 남자 수명이 현격히 길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당시 생활 여건상 여성이 출산, 영양실조, 과로와 같은 불리함을 안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반가의 경우에 남자 수명이 긴 것은 자연적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대개의 경우 재취(再娶)하게 된다. 자녀 양육과 혼사 문제나 제사 올리기, 부모님 봉양, 집안 살림, 후사 잇기 문제 등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재취 문제는 오늘날의 재취문제와 동일시하여 부부간의 애정문제로만 환시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일상의 노동과 생활 전체가 남녀의 역할 구분이 있었으며, 농경사회였으며, 대가족 사회의 층층시하였으며 신분 사회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위의 26편 행장에서 재취한 경우가 2/3이고, 재취하지 않은 경우가 1/3이라는 점을 두고 재취율이 높다, 낮다 조차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오늘날의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남녀 문제, 부부만의 문제로 해석하게 되면 역사의 실상을 놓치고 오해와 불신에 기초하여 부질없이 불필요한 비판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은 유교윤리와 봉건 신분 질서, 경제적 생산 여건이 착종된 복합적 문제이므로 오늘날의 시선으로 이해하기가 결코 간단치 않다. 본고의 4장에서 따로 논하기로 한다.

조선조 농경사회에서 자녀는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여겨졌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만큼 어렵고 드문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26건에서만 보더라도 자녀를 낳지 못한 경우가 7건(약 1/3)이나 되고,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요절한 경우도 많음을 볼 수 있다. 역시 각주 6번의 통계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망의 비율이 낮지 않다.

요컨대 조선조 후기 약 300년 동안 양반 사대부 아내의 행장 26편을 통해

7) 통계청이 제시한 ‘2008년도 생명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전체 평균수명은 80.08세, 여성이 83.29세, 남성이 76.54세이다. 여성의 수명이 평균 6.75년 정도 길게 나타나며, 이런 현상은 1970년대 통계 이래 대동소이하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DB 참조)  
1970년경부터 일관되게 여성의 수명이 6~8년 정도 길어진 것은 의술의 발달과 식생활 상태가 좋아진데다, 여성은 특히 술과 담배를 비롯해 해로운 생활 습관이 적고 사회활동에서 위험한 일에 적게 노출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알 수 있는 점은 결혼을 15~20세 무렵에 했다는 점, 여자가 일찍 죽고 남자가 훨씬 오래 살아서 재취를 했다는 점, 자녀를 낳아 성인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행장 26편을 분석했다면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사회적 생산 체제와 제도 및 신분질서, 의식(意識)에 근본적 변동이 없었던 시기의 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양반가의 부부생활상’이나 ‘사대부 아내의 부덕(婦德)’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양반가의 부덕(婦德) 항목

행장에 나열된 양반가의 부덕 항목은 아내의 가계나 성장과정 및 타고난 품덕에 대한 서술, 묘소위치 정도를 제외하면 계녀서(戒女書)에서 권장하는 부덕의 항목과 일치한다. ‘시부모 섬기기, 제사 받들기, 손님 대접하기, 일가화목하기, 종들 잘 다스리기, 태교 및 육아, 이웃과의 예절, 치산(治産:가정경제 도맡기), 남편 섬기기’ 같은 항목이 그대로 일치한다. 26편의 행장에 대해 항목별로 그 유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이씨											죽음	연민을 보임			기초 남김	
18	남유용 유씨	○	○	○	○	○	○	○	○	○	○	○	○	○	○	○	후세의 인언자를 기다림
19	오원 권씨 (行錄)	○	○	○	○	○	○	○	○	○	○	○	○	○	○	○	행록25조목으로 아내의 덕을 기림
20	박운원 김씨	○	○	○	○	○	○	○	○	○	○	○	○	○	○	○	내가 오히려 곤궁하여 평생 고생만함
21	황운서 장씨 (生卒記)	-	유순 후덕	○	○	○	○	○	○	○	○	○	○	○	○	○	자녀교육, 후일을 기대함.
22	박운원 원씨	○	○	○	○	○	○	○	○	○	○	○	○	○	○	○	내태에 고생만한 당신
23	홍석주 이씨	○	표성 지극	○	○	○	○	○	○	○	○	○	○	○	○	○	누굴 의지해 살까.
24	임원회 윤씨	○	용모 단정	○	○	○	○	○	○	○	○	○	○	○	○	○	못난 남편 탓에 고생만
25	송병신 이씨	○	여범	○	○	○	○	○	○	○	○	○	○	○	○	○	못난 남편 탓에 고생만
26	진우 박씨	○	단아 식견	-	○	○	○	○	○	○	○	○	○	○	○	○	고생, 艱友.

\*장인장모의 회고

모 일행 못하고 죽음

죽음

죽음

죽음

죽음

죽음

이상의 도표를 보면, 26편의 글은 아내의 일생을 남편이 기록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글의 제목을 행장, 행록, 행실기, 생졸기로 조금씩 달리 붙였고 그에 따라 내용의 형식과 배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실기나 행록은 부부가 함께 산 시간이 짧은 경우에 부인에 대한 평판을 들어서 기록한 내용이 많고, 생졸기 같은 경우는 아내의 일생을 연대순으로 구성하고 있어 행장의 격식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6편에 예외 없이 공통으로 기록된 항목은 4가지이다. 아내의 품성과 시집오기 전에 총애 받으며 자랐다는 것, 검소 검약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시부모를 잘 섬긴 사람이라는 것, 내조를 정말 잘 해준 동반자라는 것이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4가지 사항이 아내를 잘 드러내준다. 아내의 가문내력, 그리고 시집오기 이전의 생래적 총명함과 친절에서 가장 사랑받고 자란 아이라는 것이 아내에 대한 궁지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아내가 친절에서 얼마나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자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성의 있게 진술된 것을 보면, ‘사랑받고 자란 딸이 시집가서도 잘 산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처가에서 어릴 때부터 주목받고 신임 받던 아이가 자라 나의 아내로 시집왔다는 점이 남편에게도 내심 궁지를 심어주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시부모 섬기기와 남편에 대한 내조 두 항목은 아내가 지닌 부덕(婦德)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필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자녀 출산 및 양육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들쭉날쭉하고, 그 외 다른 항목들도 각 집안의 환경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그러나 언급이 있는 항목마다 빠짐없이 훌륭하게 모범을 보인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조선조 여성들 가운데 대단히 우수한 여성들이다. 어쩌면 유교적 여성상 자체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여러 가지 부덕 항목 가운데 남편 섬기기, 즉 남편에 대한 내조의 내용을 행장(行狀)의 맺음말과 연결 지어 특별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행장의 가장 개성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특별한 추억과 회한이 스민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

는 마음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 아내 사후에 가장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기도 한 것이다.

### Ⅲ. 아내 행장의 특징, 잊을 수 없는 내조

#### 1. 집안 경제를 책임진 아내

‘망실행장(亡室行狀)’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층 부부의 삶을 살펴보면, 전체적 분위기는 남편이 아내에게 빚진 마음으로 요약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아내가 살아 있을 때는 부인의 생활 속에서 우러난 구체적이고 생생한 식견에 감탄하고 살가운 내조에 고마워하다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며, 누가 내 잘못 바로 잡아 줄까.’하며 막막해 한다. 조선시대의 양반층 가장들은 실제 자신과 자기 집안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맘 놓고 의논할 곳이 없었던 것 같다. 밖으로 물어보자니 집안일이라 ‘누워서 침 뱉기’가 되고, 안으로는 가장의 권위를 지켜야 하니 물어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은 순종할 수 있을 뿐, 거기에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말할 수는 없으니 오직 홀로 고민하여 최종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수밖에 없었다. 한고비 한고비가 모두 진땀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어렵다 무엇이 힘들다 해도 결혼을 한 이후에 가장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결국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이고, 그것은 곧바로 ‘과거 급제 문제’였던 것 같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과거 시험이나 관직 등 진로에 대해 조언을 들은 것을 잊지 못하고 ‘행장’에 기록했다. 자신이 과거 시험 준비를 계속해야 할지 그냥 학문의 길을 가야 할지 망설일 때,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아내의 말을 잊지 못하고 중요하게 기록한 것이다. ‘과거 시험을 그만 두고 진정학문에 힘쓰시라’는 한마디에 남편이 마음의 큰 부담을

덜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을 기록한 경우(민정중, 신익항, 남유용, 박준원, 박윤원, 송병선, 전우), 그리고 학업과 진출을 권면 받은 것을 기록한 경우(이의현),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벼슬살이에 대해 초연하고 벼슬길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담담하게 대처해준 것을 기록한 경우(이선, 이간, 황윤석, 홍석주)가 모두 그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양반층 가장들이 최대 과제이자 최대 난관이 바로 과거 급제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아내가 부담감을 덜어주는 한마디는 얼마나 사무치게 고마운 말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가 든 이래로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책만 붙들고 공부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생을 그렇게 살기는 무기력하고도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비[士]’ 계급에서 학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농·공·상에 직접 뛰어들어 일을 하는 것은 백성[民]의 일이고, 돈과 이득을 드러나게 계산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오직 과거급제 하여 벼슬길에 나가 녹봉을 받거나 조상이 물려주신 토지로 지세를 받거나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모든 노동과 고생이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돌아갔다. 위의 26인 행장에서 아내가 가정 경제를 시종일관 도맡아 고생했으며 집안이 존재하는 것이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밝히지 않은 글은 8편, 26편 중에 8편이니까 30.7% 정도인 것이다. 결국 2/3 정도가 아내의 수고로 가족의 의생활과 식생활을 해결한 셈이다. 물론 집안의 다른 여자 식구들도 함께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굶은 일이 며느리의 몫이었음은 상식이다. 왜 근면 검소를 아내의 최고 덕목으로 잊지 않고 거론했는지, 음식이나 길쌈 같은 부공(婦功)을 자랑하는지도 이 대목에서 더욱 잘 이해된다.

남편, 그 한사람을 섬기는 일은 결국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이다. 집안 살림을 맡아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점이 남편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남편을 더욱 공경하는 것이다. 이중의 노력이 아내의 몫이었던 셈이다. 남편은 그런 상황과 아내의 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송병선은 “일찍이 그 지아버가 빈궁함 때문에 학업에 방해될까 걱정하여 경계하여 말하기를, ‘대장부의 흉중이 텅텅 비어 아는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중임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장차

과환(科宦)을 어찌 바라겠습니까! 원컨대 부자(夫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뜻을 돈독히 하여 위로는 아버님의 평일 우려하시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아래로는 저의 우러러 기대하는 마음을 이루어주십시오.’ 하였다.”<sup>8)</sup>라고 아내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고, 이의현은 “내가 지난 날 젊었을 때에 부인은 내게 ‘서방님께서 현달하시면 저 또한 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며 학업을 권면하였다. 벼슬한지 몇 년 만에 부인이 갑자기 죽어 영전 앞에서 부질없이 고하고 있으니 그래도 그 영광을 같이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슬프고 슬프다.”<sup>9)</sup>라고 부인 사후에 출세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어쩌다 벼슬길에 진출하여 언행을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의 호된 비판에 걸려들어 유배당하는 죄인이 되곤 하니 긴장을 풀고 지내기가 어려웠기에 부인은 종종 벼슬길에서 물러나 부모님 모시고 은거하자는 이야기를 건네곤 했다. 그런 이야기 역시 남편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이 절실하게 들렸을 것이다. 당연히 행장에 아내의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말로 기록함은 물론이다. 양반층 부부 가운데 아마도 벼슬길에 진출하여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일 것이고, 대개는 극심한 가난, 혹은 환로의 험난함에서 고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의 행장을 마무리할 때는 대동소이하게 현재 이루어진 모든 것을 아내의 공로로 돌리고, 자신의 무능 탓에 아내가 고생만 하고 그런 끝에 일찍 죽었다는 것을 한스러워하는 말로 끝맺는다. 아마도 진정에서 우러나온 회한일 것이다.

## 2. 아내의 조언, 그리고 인고

8) 嘗以其夫貧窮，恐妨學業，戒之曰：“丈夫子胥中，空空無所識，則無由見重於人。且科宦何所望！願夫子刻念篤志，上不負先舅平日憂念之意，下遂吾仰望之志焉。” 송병선(宋秉璿), 「망실 이씨 행장(亡室李氏行狀)」 『연재집(淵齋集)』 (한국문집총간330), 363.

9) 김남이,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7』 (보고사, 2010), 334.

조선조 양반 사대부들이 아내의 언행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며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 바로 아내가 자신에게 충고와 간언을 해주었던 내용이다. 그 내용들을 몇 개의 항목으로 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러하다.

첫째, 집안 대소사 및 자녀 교육에 대해 바르게 조언해준 경우이다. 신희, 신익성, 김수증, 김시보, 최규서, 박윤원 같은 분들은 아내의 조언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신희의 경우<sup>10)</sup> 계축년(1613)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친척들이 발길을 끊고 종들이 흩어져 혼란한 때에 부인이 능히 분수를 따라 환란에 대처하여 자신이 어긋남이 없도록 보필했다. 그래서 결국 심한 화를 면하고 삭탈관직된 채 시골로 쫓겨나는 ‘방귀전리(放歸田里)’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아들인 신익성의 처신에 대해서도 답답하고도 엄중하게 당부하였다. 김수증의 아내 조씨 역시 아들의 학업을 권면하면서 벼슬길에서 신중하고 바르게 처신할 것을 누누이 당부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김시보는 아내가 가난에 익숙해서 유혹이 많을 텐데도 자신이 고을살이 할 때 고을의 재물에 대해서는 쌀 한 톨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청렴했다고 하였으며, 최규서는 “당신이 내조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한 결 같이 나의 뜻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평소 그 어짐에 탄복한다.”<sup>11)</sup> 라고 하였다. 박윤원의 경우는 신속에 은거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말기를 권하면서 벼슬해서 부귀하는 것은 화를 부르니 가난하고 천하여 자기 한 몸 편안히 사는 것보다 못하다고 아내가 종종 말해주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친인척 간에 토지 거래를 할까 말까, 처가 재산을 받을까 말까 등에 대해서 아내의 조언을 들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이 집안일을 남에게 의논할 수 없어서 혼자 속을 끓이고 있을 때 그 고민을 자신의 마음처럼 자신의 입장과 일치시켜서 들어주었던 사람은 아내였다. 학식 높은 스승도, 봉우도,

10) 신희, 「망실이씨행장(亡室李氏行狀)」, 『상촌고(象村稿)』 (한국문집총간 72), 133.

11) 微君爲內助, 吾亦何能一由吾意而爲之哉. 常居服其賢. 최규서, 「망실정경부인이씨 행장(亡室貞敬夫人李氏行狀)」, 『간재집(艮齋集)』 (한국문집총간 161), 234.

부모도, 형제도 아니고 바로 아내였던 것. 남편이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해 홀로 고민할 때도 아내가 조용히 그 속을 헤아려주었다. 인생이 회오리칠 때 남편을 붙들어준 사람은 부인, 그리고 부인의 한마디였다. ‘제가 곁에 있으니 당신은 학문에 힘쓰고 흔들리지 말라’는 그 한마디 당부.

대체 부인의 그 한마디 무게는 어디서 온 것일까? 부인의 총명과 학식의 무게? 아니다. 헌신적 탐방울의 무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신이 자기 삶을 거름이 되도록 다른 대상에게 주는 일이며, 거름이란 것이 원래 드러나지 않게 묻혀 대상의 뿌리로 스미어 소리 소문 없이 대상을 북돋우는 것이니까, 아내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거름이 삭아서 스미지 않고, 거름이 밖으로 드러나 존재를 과시한다면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어떻게 대상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부인 역시 그러했다. 남편들이 그 점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아내를 배운 사람보다 낫다고 여겼고 절대 신임했던 것이라고 본다.

둘째, 남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준 아내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편 성품과 처신에 대해 바르게 조언해준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임영, 임헌회 같은 분들이 쓴 행장에는 남편 말에 절대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임영은 아내가 자신을 섬김에 “부도(婦道)를 터득하여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였으며, 지아버의 뜻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삼가 피하기를 법령과 같이 하였고, 지아버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이해와 고락을 생각지 않고 힘껏 그렇게 하였다.”<sup>12)</sup>라고 하였다. 임헌회의 아내는 “정대(正大)한 도(道)로 남편을 섬겨 세속 부녀의 정중(情重)한 태도를 본받지 않았다”<sup>13)</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익성, 정시한, 이의현, 전우 같은 분들은 아내의 충고를 고마워하며 기록하고 있다. 신익성은 정사(1617)·무오(1618) 년간에 (인목)대비를 폐하자는

12) 事其夫，卽能得婦道，極誠而盡恭。夫意所勿欲，謹避如法令。夫意所欲，卽不計其身利害苦樂而力爲之。 임영, 「망실안인조씨행장(亡室安人曹氏行狀)」, 『창계선생집(滄溪先生集)』 (한국문집총간 159), 399.

13) 事余以正大之道，未嘗效世俗婦女情重之態。 임헌회, 「망실증정부인윤씨행록(亡室贈貞夫人尹氏行錄)」, 『고산집(鼓山集)』 (한국문집총간 314), 430.

논의가 일었을 때 처신하기 어려워 끄꿍 앓으며 손님을 사절하고 집에 있었다. 어느 날 손님이 지나가다가 밤에 들러 화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매우 험하여 자신은 예에 대답만 하고 깊이 변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손님이 떠나자 옹주가 술을 따뜻하게 데우고 고기를 구워 내어오더니 “당신은 손님의 이야기에 동요하실 것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으니 영(命)에 의해 불행해지더라도 마땅히 바르게 처신한다면 반드시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궁벽하고 거친 땅 끊기고 막힌 곳에도 역시 사람이 살고 있으니, 저는 마땅히 당신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sup>14)</sup> 라고 말했다. 신익성은 옹주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위급한 순간에 의리에 맞게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점이 천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매우 공경하였지만 성품이 강직하여 자신의 허물을 보면 문득 곧장 거론하여 바르게 간언하였는데 그런 말을 수용하면 결국은 마침내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정시한은 “나는 어려서부터 토혈증을 앓아 기운이 없는 것이 7년간 계속 되었고, 화병이 크게 나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성품 또한 제 멋 대로여서 희노의 감정이 상식에서 벗어났으며 행동거지가 경망스러웠다. 아내는 상식과 사려가 있어 능히 깨우치며 주선하여 허물에 빠지지 않게 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중략…내가 집안을 잘 받는 것은 모두 아내에게 힘입은 것이다.”<sup>15)</sup> 라고 하였다. 이의현은 “내가 간혹 몹시 성을 내며 질책하면 부인은 더욱 공손한 기색으로 한 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오직 깊이 자신을 억누르며 사과하였고, 그러면 나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화를 그치곤 하였다.”<sup>16)</sup>라고 하였다. 전우는 아내에 대해 “시집은 이래로 집안사람이 그가 웃지 않는 얼굴을 본적이 없었다. 항상 남편에게 정신을

14) 丁戌間，廢大妃之論起，翊聖病不能獻議，又不敢廷參，闔戶謝客。一日有客過夜訪，憤之以禍福之說，其言甚厲，翊聖唯唯不深辨。客去而主暖酒燠炙而進之曰：“君亡亦動於客之說乎。死生有命，藉令不幸，當處之以正，況不必死者乎。窮荒絕塞，亦人之居，吾當隨君而行耳。” 신익성, 「망실정숙옹주행장(亡室貞淑翁主行狀)」, 『낙전당집(樂全堂集)』 (한국문집총간 93), 358.

15) 김경미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보고사, 2006), 88-89.

16) 김남이,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보고사, 2010), 331.

아끼고 돌보라고 권하였으며, 선친의 훈계를 따랐다. 전우와 더불어 부부가 된 지 17년 동안 웃고 얘기함에 정답고 흡족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sup>17)</sup>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아내가 반드시 내려와 절을 하며 맞이했다고 회상하였다. 아내가 남편을 말 그대로 ‘섬기는’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들이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된 언행이나 부족함에 대해 아내가 간언(諫言)하는 것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피차간에 떳떳한 언행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판을 수용하여 자기를 보완하는 것은 양(陽)의 강건(康健)함을 의미하며, 부드럽게 간언하는 것은 음(陰)의 유순(柔順)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서로의 도리를 최대한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을 믿고 따르며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아내의 조언은 모두 남편의 입장에 충실하게 스며드는 것이지, 따로 독립적으로 지시하거나 감시하는 내용이 아니다. 남편들은 그 점을 숨 쉬듯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비판적 조언과 수용’ 자체가 후세에 남길 만한 자녀교육의 내용으로 손색이 없다고 여겼던 것 같다. 이런 모습 자체가 유교적 부부상의 한 이상적 전형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아내의 말할 수 없는 인고(忍苦)에 대해 남편도 유난히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아내가 몸이 앓도록 애쓰고도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든 역할, 마음고생을 지독하게 겪는 자리를 긴긴 세월 무던히 지켜온 것에 대해 그랬다. 과부가 된 시누이와 30년을 화목하게 지낸다거나(신흥의 아내), 공주의 신분으로 귀하게 자랐는데도 시아버지 옥바라지를 손수 했거나(신익성의 아내), 우리 집도 가난한데다 가난한 친인척까지 돌봐준다거나(최규서의 아내), 전처소생 자녀를 잘 키워준다거나(이의현의 아내), 첩을 투기 없이 잘 거느린다거나(조판반의 아내), 시아버지의 첩에게도 정성을 다한다거나(박운원의 아내), 서녀를 돌이나 기른다거나(임헌희의 아내), 과부 시고모를 모신다거나(송병선의

17) 入吾家累年，家人，未嘗見其笑容。……常勉余以保惜精神，用遵先戒，與余爲夫婦十七年間，未嘗笑語款洽。故燕私之言，無不可道於人。 전우, 「망실박씨행장(亡室朴氏家狀)」, 『간재집(艮齋集)』 (한국문집총간 333), 284.

아내)하는 일들이 모두 그런 것에 해당되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은 남편이나 시댁을 향해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조선시대 당시로 보면 특별히 윤리도덕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대가족이 사니까 과부 시누이, 시고모를 모시게 되는 것이고, 첩이나 서녀에 대한 문제 역시 당시생활 상황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었다. 남편이 외직에 나가게 될 경우 본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당을 지키며 집에서 안주인 자리를 지켜야 했고, 남편은 그곳에서 의식(衣食)을 돌봐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첩을 들이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자식이 태어나면 역시 대대로 혈통이 물려지는 데다 그 자녀들의 성장과 혼사를 다 책임지고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간단히 남녀 정분나듯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 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첩을 두게 되면 그 역시 아내가 함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다. 첩이 일찍 죽고 자식들만 남겨 놓았을 경우에는 아내가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들과 같이 길러야 했다. 의생활 식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노동과 여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없던 시절, 식구 하나가 늘어서 그를 입히고 먹이는 것은 노동의 양이 폭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람 사이의 감정은 얼마나 예민한지, 대가족이 모두 저마다의 입장에서 서운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 하나하나가 예절에 맞아서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수습해야 하니 그 고생이 오죽하겠는가. 남편은 그 점을 잘 알았기에 특별히 기록했던 것이다.

다만, 아내의 속마음이 어땠을까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아들이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행장을 쓴 경우로 조금 유추해볼 수는 있다. 어머니가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 온갖 고생 마다 않고 가문을 지켜 오신 모습에 대해 이들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고, 당신 스스로도 긍지를 지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아내들이 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시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자.

#### IV. 맺음말: 부덕(婦德)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선들

이상에서 조선시대 「망실행장」 26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전형적 유교가부장제를 실현하고 있는 양반층 부부의 모습이었다. 아니, 조선시대 양반층의 모범적 부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명문가에서 총명하게 태어나 사랑받고 자라서, 시집가서 남편은 학문에 힘쓰고 집안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의 수고를 돌아보며, 아내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르며 최선을 다해 보필하여 가문을 지켜가고 있으니까. 더구나 아내의 혼신의 힘을 다한 헌신은 완벽에 가까운 부덕(婦德)을 실현함으로써 온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족들의 감사와 믿음을 얻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부부가 다 26편의 행장에 나오는 부부들 같진 않을 터이니, 유교가부장제 내의 부부 역할을 대략 이런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표-3]

	남편(가부장: 벼슬, 학문)	아내 (가정 경제, 가족돌보기)	현상	기록자/ 장르
①	성실 책임, 아내 격려 (재취함/ 혹은 안 함) (첩을 둠/ 혹은 안 둠)	헌신적 인고, 순종=> 자궁 (재취 당연시하며 뒷일 부탁) (첩을 거느림, 질투 안함)	소수	남자: 碑誌傳狀 여자: 婦訓·內訓·戒女
②	성실 책임, 아내 격려 (재취함/ 혹은 안 함) (첩을 둠/ 혹은 안 둠)	헌신적 인고, 순종=> 슬픔 (재취 당연시, 서운해 함) (첩을 질투함)	다수	남자: 碑誌傳狀 남/녀: 국문소설 (시집살이 노래, 신세자탄가 )
③	성실 책임, 아내 격려	불성실, 행실 나쁨	예외	
④	불성실 무책임, 아내 구박 (재취함) (첩을 둠)	헌신적 인고, 순종=> 허무 (재취 당연시 함, 불쾌 ) (질투, 신세 한탄)	다수	여자/ 국문시가 (시집살이 노래, 신세자탄가 ) 남/녀: 국문소설
⑤	불성실 무책임, 아내 구박	불성실, 행실 나쁨	예외	

위에서 ①번 유형이 26편의 행장에 나오는 부부상인데, 이런 경우조차도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것이다. 아내의 어깨에 시댁 전체가 실려 있는 것처럼 너무나 고된 짐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실려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아내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가문을 위해 헌신했고 그런 헌신적 노력으로 지켜낸 가문에서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저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유교가부장제의 모범적 형태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의 차이, 시대의 변화임을 부정할 수 없다. ②번의 유형은 유교사회에서는 여성 쪽에 충고와 훈계가 쏟아졌을 유형이고, 오늘날에는 여성 쪽에 응원과 지지가 쏟아졌을 유형일 것이다. 이 유형의 조선시대 여성들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규원가’ 라든가, ‘시집살이노래’ 혹은 ‘신세자탄가’ 유형의 가사들이라고 본다. 그런가 하면 ③번 유형은 조선시대에는 예외 없이 출처(出妻) 대상이었을 것이나, 오늘날 일부 여성들에게는 ‘고소한 웃음’이랄까 ‘쌉싸름한 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④번의 유형이다. ④번 항목이야말로 오늘날 유교가부장제의 전형적 부부상이라고 각인된 것 같다. 남편이 과거공부를 폐한 채 방황하고, 집안을 지탱할 경제력도 활동수단도 갖지 못한 채로 오기만 남아서 가족을 괴롭히는 유형 말이다. 못나고 찌든 가부장 유형이 신분제 사회 말기로 오면서는 아마도 다수였지 않을까. ④번 항목이 ‘대세’였음은 국문소설에서도 이런 유형의 가부장들이 등장한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장끼’나 ‘이춘풍’처럼 비판적 놀림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이니까. 이 유형은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여성들에게는 경멸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 부부유형일 터인데, 남성들의 시선은 좀 다양했을 것 같다. 조선시대에도 인격적 남성들은 이 경우의 남성들을 비판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남성들에게는 당연시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이라면 남성들도 절대 다수가 이런 경우는 좋지 못하게 여길 것이다. ⑤번 유형이야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이루면 안 될 유형의 인물들로 인식될 테니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①번 유형이든 ②번 유형이든 ④번 유형과 같은 것은 조선시대 유교가부장제에 적합한 부부상일 뿐이고, 지금은 완전히 청산된 유형, 즉 과거의 부부상 유형일까? 그 점이 문제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농도의 차이는 크지만, 달리 표현하자면 형태와 색깔은 바뀐 것이 많지만 우리 사회 부부상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교가부장제의 부부상 속에 있는 듯하다. 남성성, 여성성, 남편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성, 그리고 가족 질서와 역할, 아내의 어깨에 집안의 모든 일이 다 지워져 있고 남편은 자기 집일인데도 ‘돕는다’는 표현을 자랑스럽게 한다거나, 직장 여성은 육아 때문에 직장에 지각하는 것을 금기시하는데, 직장 남성은 육아 때문에 직장에 지각하는 것을 ‘좋은 아빠’ 노릇을 하는 생색을 내는 것이 통하는 사회인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생활 관습, 생활 정서는 좀체 바뀌지 않는다. 공기처럼 우리를 일상에서 훈련시켜 대물림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의 물음을 제시하면서 이 논문을 마감하려 한다. “후기 산업사회의 바람직한 부부 모델은 어떤 것일까?”

## 참고문헌

- 김경미 외 역주(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4』, 보고서.  
 김석주, 『息庵遺稿』, 한국문집총간 145, 민족문화추진회.  
 김수증, 『谷雲集』, 한국문집총간 125, 민족문화추진회.  
 김시보, 『茅洲集』, 한국문집총간 속집 052, 민족문화추진회.  
 남유용, 『雷淵集』, 한국문집총간 217, 민족문화추진회.  
 민정중, 『老峯集』, 한국문집총간 129, 민족문화추진회.  
 박윤원, 『近齋集』, 한국문집총간 250, 민족문화추진회.  
 박준원, 『錦石集』, 한국문집총간 255, 민족문화추진회.  
 서사중(1988), 『和刻本文體明辯』, 京都, 中文出版社.  
 송병선, 『淵齋集』, 한국문집총간 330, 민족문화추진회.  
 신익성, 『樂全堂集』, 한국문집총간 093, 민족문화추진회.  
 신익황, 『克齋集』, 한국문집총간 185, 민족문화추진회.  
 신희, 『象村稿』, 한국문집총간 072, 민족문화추진회.  
 오원, 『月谷集』, 한국문집총간 218, 민족문화추진회.  
 이간, 『巍巖遺稿』, 한국문집총간 190, 민족문화추진회.  
 이선, 『芝湖集』, 한국문집총간 143, 민족문화추진회.  
 이의현,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181, 민족문화추진회.  
 임영, 『滄溪集』, 한국문집총간 159, 민족문화추진회.  
 임헌회, 『鼓山集』, 한국문집총간 314, 민족문화추진회.  
 전우, 『艮齋集』, 한국문집총간 333, 민족문화추진회.  
 정시한, 『愚潭集』, 한국문집총간 126, 민족문화추진회.  
 조관빈, 『梅軒集』, 한국문집총간 211, 민족문화추진회.  
 조극선, 『冶谷集』, 한국문집총간 속집 026, 민족문화추진회.  
 최규서, 『艮齋集』, 한국문집총간 161, 민족문화추진회.  
 통계청(1994), 『통계분석 자료모음, 1991-1994』, 통계청.  
 홍석주, 『淵泉集』, 한국문집총간 294, 민족문화추진회.  
 황수연 외 역주(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 보고서.  
 황윤석, 『頤齋遺藁』, 한국문집총간 246, 민족문화추진회.

## 【Abstract】

There are 26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 in *The korean collection of works* from 17C to 19C. I studied the items of marriage, separation by wife's death and female virtues in this 26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

The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 and her epitaph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a form and a content. The female virtue items written in the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 are same except for his wife's family, a growth process and a tomb location. The items are parents-in-law supporting, memorial service for the ancestors, guest entertainment, management of household affairs and the education of her children.

Nevertheless the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 have husband's mind for his wife, the memory of his wife and rich store of anecdotes. Therefore the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 contain husband's gratitude for his wife and husband's special memory of his wife. Specially, he thanks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affairs, suitable advise and her endurance.

I can discover the noble couple's figure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through 26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 Even though the times change, the custom rarely change. Now it is time to find the new couple model which gets out Confucian patriarchy.

【Keyword】 the records of a deceased wife's life(亡室行狀), female virtues(婦德), husband's mind, management of household affairs(治産), advise(助言).

논문 투고일: 2011. 09. 13

심사 완료일: 2011. 10. 17

게재 확정일: 2011. 10. 21

